

# 월간 실적보고

## 2016.12

### Summary of 2016 Dec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**25.9%** 성장
  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8.7%** 성장
  - 패키지 **6.6%** / 티켓 **11.7%** YOY 성장 (11.5만명 / 8.6만명)
3. 유럽 **33.6%** , 남태평양 **17.8%** , 중국 **17.7%**
  - 유럽 성장률 급상승 11월 **1.9%** → 12월 **33.6%**
  - 일본 제외한 전 지역 플러스 성장

**12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성장률 25.9%**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성장 8.7%, 송객인원 20만명

패키지 성장률 6.6%, 송객인원 11.5만. 전년대비 공휴일 하루 줄어든 12월 비수기로 성장 속도 다소 둔화.  
 티켓 성장률 11.7%, 송객인원 8.6만.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FIT 여행수요도 성장속도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.

**12월 실적**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6	115,303	86,601	201,904
2015	108,149	77,521	185,670
YOY	6.6%	11.7%	8.8%

패키지 YoY : 10월 10.4% → 11월 12.5% → 12월 6.6%

티켓 YoY : 10월 23.4% → 11월 18.5% → 12월 11.7%

총송객 YoY : 10월 15.2% → 11월 14.8% → 12월 8.8%

**지역별 성장 (YoY)**

12월 지역별 인원 성장률 유럽 33.6% , 남태평양 17.8% , 중국 17.7% , 미주 5.6% , 동남아 5.5%

유럽 +33.6%, 유럽 수요 회복 및 15년 파리 테러로 인한 낮은 기저 효과 구간 진입 (15년 12월 -7% Yo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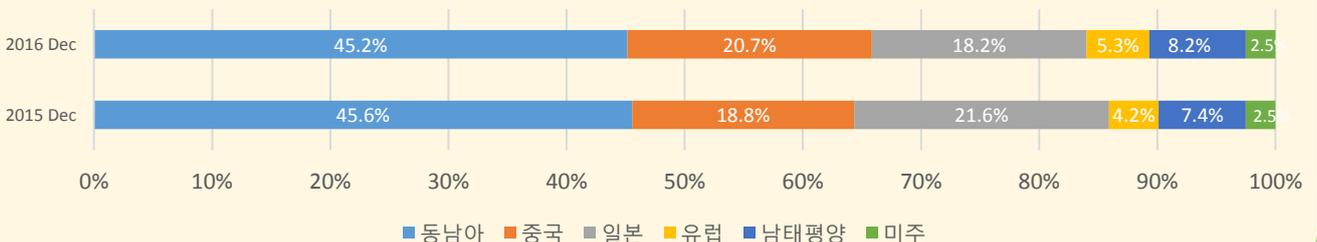
남태평양 +17.8%, 중국 +17.7%, 각각 10,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. 비수기에도 단,장거리 고른 성장.

미주 +5.6%, 동남아 5.5%, 작년 YoY 약 20%로 높은 기저의 부담이 있지만 플러스 성장 지속.

일본 -10.5%, 전년 동월의 높은 성장율에 역성장 했으나 완만한 회복세, 겨울 성수기 부터 회복 예상.

14년 이후 가장 심한 비수기 이지만 일본을 제외한 전 지역이 플러스 성장, 특히 유럽이 강한 성장세 보임.

**인원 비중**



**예약률 증감 (PKG)**

(단위 : 명, %)

	17년 1월	17년 2월	17년 3월
증감률	8.0%	30.1%	86.0%

\* 2016.12.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16년 4분기부터 국정농단 사태와 그에 의해 유발된 촛불집회 등으로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신규예약의 둔화가 나타났음. 그에 따라 **17년 1월**까지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나, 해당 사태는 약 3개월 정도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. 실제 **17년 2월** 예약률은 전월 말 기준 예약률 대비 변동 크지 않음. 시민 참여가 아닌 헌법 절차에 따른 사태해결에 대한 기대가 늘면서 17년 2월 이후 출발 예약 수요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. **17년 3월 예약률** 또한 **86%**로 **1분기 전체 성장성은 양호**.